

【변증법 용어】 관계(關係, Verhaeltnis)

무산자

“본질적인 관계는 현상의 일정한 보편적 양식이다. 실존하는 모든 것은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인바, 이 관계라는 것이 모든 실존의 진리이다. 따라서 실존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다른 것과 고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란 대자적 관계(der Beziehung auf sich)와 대타적 관계(der Beziehung auf Anderes)의 통일이다. (...) 이 관계 속에서 동일한 것, 즉 이 관계 중에 존재하는 대자적 관계는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대자적 관계이다. 그리고 직접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실질이 무차별적이면서 동시에, 자기에 대한 부정적 관계가 되는 그러한 매개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부정적 관계는 그 자체가 자기 내 반성을 통해 구별에 맞닥뜨리면서 자기를 타자 내 반성으로서 실존하는 것이라고 정립하는 동시에, 이 타자 내 반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서 무차별성(Gleichgueltigkeit)—힉과 그 표현의 관계로 환원시킨다.” (G. W. F. Hegel, *Saemtliche Werke*, Bd. 8, Frommann Verlag, Stuttgart, 1964, §§ 133-134.)

“본질은 이 관계(본질적 관계; 인용자) 속에서 자립적으로 실존하는 많은 것들을 스스로의 존립 기반으로 삼으면서 실재화되어 있다. 이제 이렇듯 실존하는 것은, 그들 서로간 무관심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의 본질적 통일성으로 복귀함으로써, 오직 이러한 본질적 통일만을 스스로의 존립 기반, 요건으로 삼는다. 여기서는 또한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이 행하는 반성 규정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자기의 반대되는 것으로 반성된 것으로서만 자기 내에 반성되어 있다.” (G. W. F. 헤겔, 임석진 역 (2022), 《대논리학》, 제2권, 자유아카데미, p. 259.)

관계란 사물과 현상이 오로지 서로의 부정적인 것 속에 반성된 것으로서만 자기의 동일성을 지님을 드러내는 양식을 뜻합니다.

변증법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부단히 자기부정하는,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관계의 규정적 발현형태(또는 양태로 표현되는 관계)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컵, 필기도구 등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는 항, 즉 자립적인 항이지만, 거저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부정적 관계를 자기의 계기로 삼고 있는 자립적인 항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다른 것과 경계를 이루는, 자기의 항을 표현하는 양태이면서도 무한한 관계로 고찰되어야 하는 이중적인 규정성입니다. 이를 더욱 내밀하게 고찰하여 얻어낼 수 있는 진리는 상이한 것들의 구별을 근거하는 외재적 자립성 역시 관계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입니다. 변증법에서 자립성은 다른 것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자립적인 것’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관계 속에서 굳어진 자립성으로서 고찰됩니다: “그것은 자립적 실존을 지니면서 동시에 본질적인 자기반성인 것”(《대논리학》, 제2권, p. 260.)입니다. 헤겔은 《논리의 학》에서 무규정적인 본질로서 정립적 본질이 관계 운동을 통해 각자 구별되는 항으로서의 본질, 즉 규정적 본질로 전화할 수 있음을 사변논리로써 입증했습니다.

규정적 항으로 된 본질은 이제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관계 규정인 연관(聯關, Zusammenhang)으로서 고찰되고, 규정적 본질은 다시 무한한 부정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제 규정을 현출하면서 정립적 본질-전제적 본질-규정적 본질이라는 변증법적 순환운동을 구성합니다. 이는 관계 역시 다른 사물과 마찬가지로 자립적인 항—관계항으로서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상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것들 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관계 범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사물 간 관계를 상관관계—일반적으로 양적 비례-반비례 관계를 표현하는 그것으로서—또는 인과관계로 확정하는 작업은 과학탐구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수많은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양적 연구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 연구의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는데, 그 이유는, 변함에 어떠한 것이 관계하느냐보다는, 이 관계 속에서 어떠한 항이 더 강한 규정력을 지니는가, 즉 구별되는 항 사이의 규정력의 크기(양)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을 파악함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라는 두 관계의 영역 상에서 주요한 준거점—하나의 사물 규정의 양적 변화가 다른 사물 규정의 양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공변성(共變性)의 관찰, 선후관계, (두 항으로 이루어진 관계항의) 다른 변항의 개입으로부터 자율성 등의 내적 근거 역시 또다른 개별 관계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수’ 양적 연구의 형식논리적 도구만으로 대상의 내밀한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에 전제되는 여러 방법론적 준거점 역시 개별 관계항으로 분할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동일한 양적 도구를 활용하는 선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과학사적으로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이 실은 인과관계였던 것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결과 연관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았던 것들이 수많은 매개적 사슬 속에서만 발현되는 관계항이었음이 밝혀지면서 이 관계항이 자기의 대립물로의 전화, 즉 상관관계라고 규정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현재도 이러한 역전—물론 사유가 더더욱 실재의 내용과 일치해 들어가는 것을 일정하게 동반하기도 하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증법에서는 마르크스가 프루동을 비판하였던 맥락과 마찬가지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증법적 연구 활동에서 인과관계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는 방향적 기초는 대상 발전의 전 측면을 규정하는 지배적 규정력으로서의 보편적 연관을 파악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상이한 현상 간 보편적 연관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세우는 것은 변증법적 방법론과 다른 형이상학적 방법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계의 다양한 표현형태에 관한 탐구는 과학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과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분야,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물 간 관계 규정을 확정하는 일은 매우 다사다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냐하면 연구에서 설정된 두 변항에 개입하는 제3의 변항을 방법론적으로 배제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증법이 보편적 연관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관련됩니다. 변증법적 방법론에서 보편적 연관을 표현하는 관계 규정의 추출 및 연구는 앞선 방법을 일정 포괄하는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설정된 추상적 사유 대상의 발전사(發展史) 또는 전사(全史)를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를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항에 대한 이러한 방법론에 기초한 변증법적 연구의 목적은 보편적 연관을 발견해 내고 마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대상 관계에 내재한 더 본질적인 연관 방식—인과적 연관, 조건적 연관, 발생적 연관, 양적 연관 등—을 더 많이 추려내서 개별 객관적 실재의 실제적 운동 양상에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의 방법〉에 기초한 변증법적 연구는 개별적인 것에 대해, 보편적인 것에 우연히 부가(附加)된 수동적인 것들의 합산이 아닌, 보편적인 것의 자체로부터 전개된 모든 것임을 연구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물에 대한 변증법적 연구는 추상된 관계항을 설정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사유 속에 반영된 구체적 사실—양적 규정까지 포괄하여—은 이 추상된 관계항의 맥락을 추적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상된 관계항은 더 많은 매개점을 자기의 양식으로 포괄하는 관계항으로 발전합니다. 연구자는 이 양식에 내재한 관계항의 시간적 연관 계기의

층차적 구조—역사적인 것을 반영한, 상호 제약적인 논리적 범주들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일차적인 것은 연구대상에 관한 역사적 기원과 과정의 추적이지만, 관찰된 역사적인 내용으로부터 논리적인 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기법 등의 양적 연구 방법이 일정 필요합니다.